

강일동,

아파트 공동체가

환락 피었습니다

강일동, 아파트 공동체가 활짝 피었습니다

발행일 2014년 12월18일

발행처 희망제작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강동 290-11 비전빌딩 2,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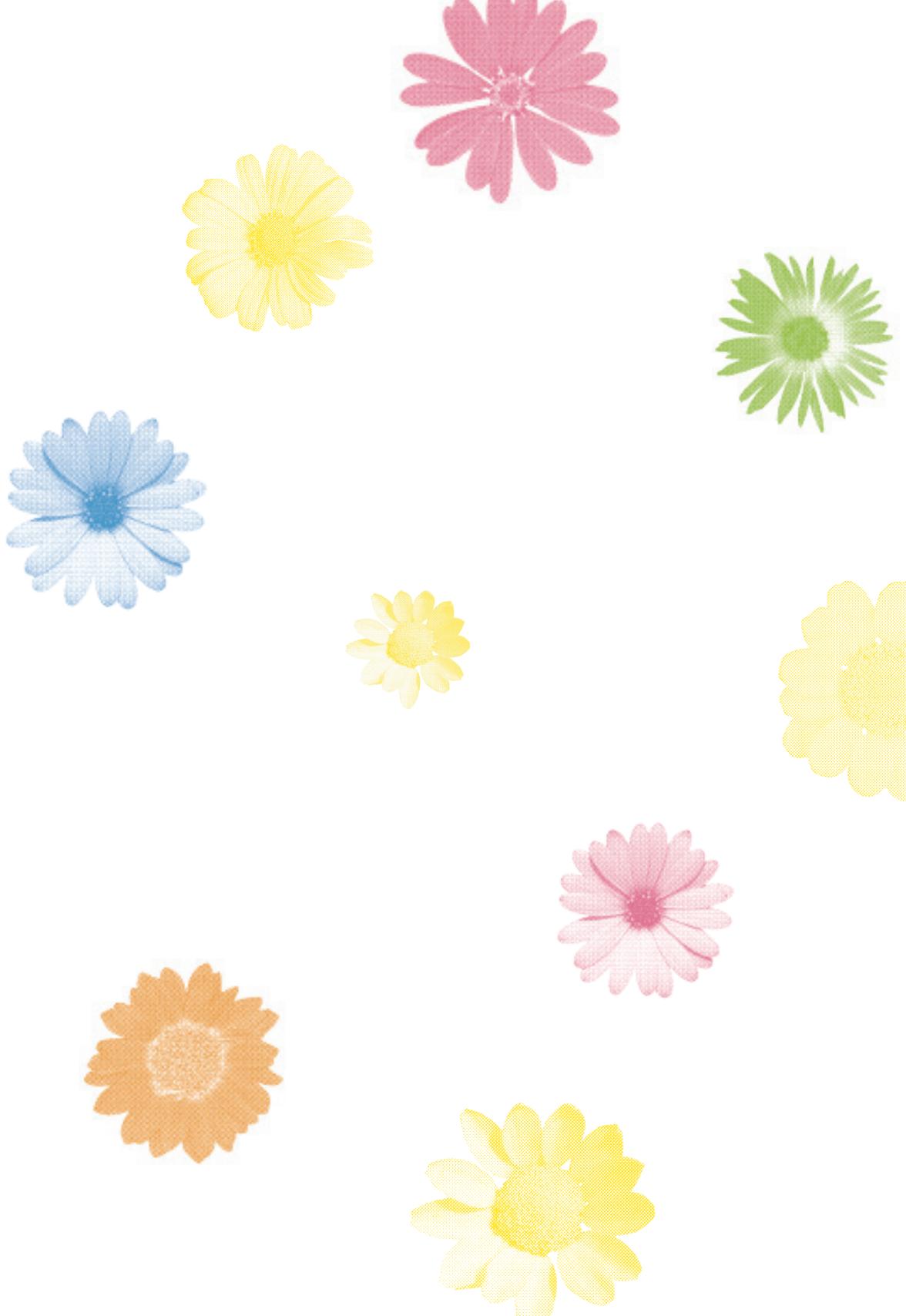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홈페이지 <http://book.makehope.org>

기획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이 책에 실린 사진 판권은 류인덕, 이희중, 희망제작소에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한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SH공사의 도움으로 제작했습니다.



강일동,
아파트 공동체가
완전
피었습니다

프롤로그

모두 친구가 되는 마을을 꿈꾸는 아띠공동체 - 이현주	9
뭐든지 다 해도 괜찮은 작은 도서관 - 정선옥	16
마을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만드는 사진가 - 류인덕	24
행복한 삶의 주인 되기 공동육아 공동체 엄마정 - 정은영	31
마을을 행복한 향기로 채우는 커피전도사 - 홍순애	37
즐거운 7단지 아파트 공동체에 놀러오세요 - 김의연	45
배우고, 놀고, 즐기는 행복한 공동체 글향기 문고 - 배영숙	51
강일동 사람들의 해피하우스, 열린공간 - 고경자	57
커피&샌드위치와 함께 인생을 가르치는 영어선생님 - 김동익	64
아이들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꿈빛도서관 - 진경희, 김미영	71
지역 아이들의 오붓한 보금자리, 강일지역아동센터 - 박필화	78
강동 사람들을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 - 이희동	85

에필로그

강일동,
아파트 공동체가
환락 피었습니다

프롤로그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하여

대한민국 사람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파트공화국이 되었고 아파트 없는 도시생활은 상상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60~70년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편리함과 부의 상징으로, 그리고 재산증식을 위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의 아파트는 점차 사는(住) 곳이 아니라 사는(買)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속의 고급스런 이미지와 높은 집값만이 아파트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주민은 이웃 간 단절, 층간소음, 안전문제 등으로 불안합니다. 이웃이 없는 마을, 웃음이 사라진 동네, 마을공동체의 부재가 지금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파트에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는 없을까요?

희망제작소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행복하아파트공동체사업(이하 '행아공'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서 아파트 문화를 바꾸고, 행복한 아파트공동체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 '행아공' 사업은 SH공사, 한겨레신문사에 제안하면서 2013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파트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해서 주민 교류를 확대하고, 주민 리더그룹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아파트 단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해에는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리버파크아파트 7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공동체 학교와 관리사무소에 있는 문고실, 탁구실 등 공간 꾸미기,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1개 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대상을 좀 더 넓혀서 각 단지 별로 활동하는 다양한 공동체그룹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일동 아파트에는 다채로운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엄마정과 같이 공동육아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문고실을 중심으로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놀고 배우는 꿈빛맘, 핸드드립 커피를 배우는 동아리 소모임과 봉사활동을 매개로 청소년과 노인들이 만나는 아띠봉사단 등 공동체 활동의 주제와 폭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강일동, 아파트공동체가 활짝 피었습니다〉에는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와 강일동에 대한 추억을 담았습니다. 강일동 아파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좋은 사례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사례 중에는 공동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곳도 있고,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곳도 있지만 이 또한 새롭게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거나 비슷하게 고민하는 단체들에게는 좋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모두 친구가 되는 마을을 꿈꾸는

아띠공동체





이현주 아띠봉사단 단장 (3단지)

이현주 씨는 강일리버파크 3단지 주민으로서 2010년부터 '친구'라는 의미의 '아띠' 봉사단 활동을 하고 있다. 아띠봉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 주민, 청소년들과 함께 독거 어르신 밑반찬 봉사, 김장 나눔, 고덕천 청소, 공동체텃밭농사, 단지에 화단 가꾸기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이다.

아띠봉사단은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과 봉사활동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에 일일 서울 시민시장과 서울시장상, 구청장 표창장 등을 받았다. 봉사단 단장으로서 항상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고 주위를 돌보며 오늘도 강일동에서 마을공동체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이현주 씨를 만났다.

인생 황금기에 이사 온 강일동

2009년 입주할 당시 인생황금기였어요. 막내아들까지 모두 취업이 잘 되었어요. 할 일을 다 했으니깐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강좌에 참여하면서부터 사회봉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때는 일 년에 거의 20회 정도 많은 강좌들을 들었어요. 현재는 100회 이상을 참여한 강의쇼핑이 취미가 됐죠.(웃음)

제 개인 자원봉사는 2010년에 시작했지만,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강의와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해서 아파트봉사단을 하게 되었어요.

봉사단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사전을 찾아서 '친구' 라는 단어의 순우리말인 '아띠봉사단' 이라 이름 짓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섬기듯이 받드는 봉사활동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1년에 4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자긍심을 키워주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싶어서 환경보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쓰레기 줍기, 텃밭에 모종심기, 발갈기, 김매기 등을 하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졌지요. 봉사 할 때마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꼭 되새기라고 풀이를 해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단어는 自(스스로자) 願(원할원), 奉(받들봉), 仕(섬길사)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지요. 학생들에게 너희가 원해서 하지만 섬기듯이 받들며 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한 친구가 봉사부장을 합니다. 프로그램 언제 하냐고 미리 물어보면 행사일정을 알려 주죠. 그러면 그 친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만하면 체계가 잡힌 건가요?(웃음)

아띠봉사단에서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활동은 어렵게 사시는 지체장애자, 집에



서 칩거하시는 독거어르신을 방문해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께서 김치가 제일 드시고 싶다고 해서 김장나눔 봉사도 하고 있어요. 청소년봉사지들과 텃밭을 일구고 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어르신들께 배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텃밭에서 키운 배추와 무로 김장을 해서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많이 드리지는 못해도 감사해서 손을 꼭 잡아 주실 때면 정말 잘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이 듭니다.

주말농장 텃밭은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은 토요일만 가능하고 봄에는 일이 많은데 함께 일할 사람이 없네요. 결과가 좋으면 일하는 사람이 생기지만 아직은 여의치 않습니다. 함께할 제자들을 많이 키우고 있고, 아미봉사단을 위해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잘 되겠지요.(하하)

작년에는 화단 가꾸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든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땅파기가 너무 힘들고 다른 것보다도 매일 물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교육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강일동 주민은 누구나 아띠봉사단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70명이 계시고, 일은 주로 임원진들이 하고 있죠. 공동체에서 단체를 운영할 때 회원 간에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주부이다 보니 시간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힘든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은 꼭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띠봉사단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방에만 계시는 독거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마을에서 함께 즐거운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 자원봉사를 해야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2011년에 강의도 듣고 아띠봉사단 활동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때 나는 제일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이들이 다 잘되었거든요. 성심껏 해도 잘 안되는 게 자녀교육인데 아이들이 다 잘 되면서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고 사회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마을공동체 교육이 필요

개인적인 삶의 지향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살지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실천을 잘 하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가끔 지나치게 일하다 보니 회원들이 따라오기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그 때마다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다독입니다.

마을리더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바라는 점은 아미봉사단의 다음 리더가 잘 오셔서 더 키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더 발굴하려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수석제자를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웃음)

50대 이후의 주부들이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각자 취미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라서 교육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대가 핵가족화 되다보니 대다수의 가정에선 내 아이만 챙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입니다.

내년에는 젊은 엄마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활기차기도 하고요. 나는 나이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봤더니 좋기도 하고 싸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를 하면서 바라는 점은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그들의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마을공동체교육을 꼭 했으면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그 분들의 입지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을이 소통되면 정말 재미난 마을이 되지 않겠어요? 다음은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시장 노점상인 남대문 재료가게 등) 장을 보러 갔을 때 영수증 처리와 세금 문제 때문에 값싸게 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든요.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사업만큼은 영수증처리를 좀 간소화했으면 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과 소통 할 수 있는 창이 만들어졌고 그들과 마을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를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쌓이다 보면 서울시가 지향하는 재미난 마을이 되지 않을까요?

뭐든지 다 해도 괜찮은

작은 도서관





정선옥 함께크는우리 작은 도서관 관장(상일동)

정선옥 씨는 상일동 주민으로 작은 도서관 함께크는우리 운영을 맡고 있다. 작은 도서관 함께크는우리는 20년 전 (사)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에서 처음 송파에서 설립하였으며, 2007년 장소를 현재의 상일동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작은 도서관 함께크는우리는 비단 도서관으로서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거점으로 아이들과 엄마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교육, 복지활동 등을 통해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년 된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함께크는우리(이후 '함크')는 역사가 깊은 도서관이에요. 서울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송파구의 한 가정집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으며, 20여 년이 넘었어요. 2007년에 이사를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일한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육아 품앗이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 아이가 4살 때 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네요.

'함크'에서는 공공 도서관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점이 있다면 후원회원들에게만 책을 대출하고 있어요. 현재 도서관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책은 8,000권 정도 되구요. 실제로는 만 권 정도 되요. 뿐만 아니라 육아품앗이, 환경, 독서토론, 연극, 합창 등 다양한 동아리 모임과 독서토론, 절기행사, 전래놀이, 책놀이, 역사탐방 등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바깥 도서관이라는 마을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요.

'함크'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동아리가 환경동아리 '천연미인'과 '줌마영어'예요. 도서관 이용자 중 한 분이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다른 엄마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함께 모아져 '줌마영어'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졌어요. 또 작년에 '생생이야기보따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생태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이들이 생태 탐방할 때 엄마는 환경 강의를 듣고 친환경 제품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환경동아리 '천연미인'의 경우 '생생자연이야기보따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공방에서 천연제품을 만들어본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꾸러졌습니다. 이처럼 도서관 이용자들의 재능기부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의해 동아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 동아리를 만들었다면 요즘은 이용자들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동아리



가 필요하니 사람들을 모집하자' 였다면 지금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바뀌었어요.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작은 도서관

'함크'에는 육아폼앗이 '도토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엄마들이 아이를 이제 까지 방식과는 다르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육아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선생님을 초빙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요. 모든 모임이 공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유치원에서 하지 않는 것들, 자연과 공동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조금씩 더 성장하니까 아빠가 참여하는 가족캠프를 가고, 부모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도 2년째 진행 중입니다.

부모커뮤니티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마을공동체 견학을 가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방과 후 교육을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전래놀이 강좌나 '놀이하는사람

들’ 교육에도 참가 했으며 다른 도서관 강좌도 참석하고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숲놀이터 견학도 예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현재는 어린이 집을 보내고 다녀온 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까지 생각하려 합니다.

이외에도 독서토론통아리 ‘벼와보리’ 는 벌써 4년차에 이르렀네요. 처음에는 가벼운 소설로 시작했고, 이후 육아서, 교육서를 읽으면서 그 깊이가 확장되어 갔어요. 지금은 엄마들이 인문학 관련 책을 읽어보자는 의견이 있어 플라톤을 읽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플라톤의 ‘향연’ 을 읽고 토론할 예정이랍니다. 이제 마을이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 때인 것 같아요.

도서관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지역주민의 뜻 깊은 재능기부로 만들어져요. 마을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재능기부로 도서관 아이들과 인형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바느질통아리 선생님도 지역의 마을기업에서 재능기부로 와주고 계세요. 마을이 서로를 돕는 거죠.

다함께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서로 하나씩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행사 뒤에 서로 즐겁게 나누어 먹어요. 엄마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도서관의 운영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100% 회비로 운영

‘함크’ 는 (사)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열린사회는 해뜨는집이라는 이름으로 집수리 봉사도 하고, 시민대상교육 및 도서관 운영 등에 대한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현재 ‘함크’ 에 이용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400여 명 정도 되는데 주이용자들은 가까운 이웃들과 동아리 회원들이세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후원회원이 되지는 않으나 오래 다니면서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후원회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도서관은 정부지원이 없어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곳은 100%

시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매년 적자입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작은 도서관에 도서관구입비로 한 해 2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매달 25권의 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지요.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후원하는 도서관 후원 회원님들과 책, 커피, 문구 등 다양한 기증과 재능기부 등을 하는 주이용자들이 실제적인 도서관 운영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현재 도서관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지만 작년까지는 반상근이었어요. 그때는 요일별로 오전에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지킴이를 해주셨는데 서울시 북가페지원사업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 지금은 상근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매일 일을 하고 있어 업무처리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주말에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학생들이 엄마와 함께하는 봉사를 통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상근직으로 일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함크’ 이용자가 많이 늘면서 상근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운영위원님들의 도움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전문 사서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기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는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보다 즐거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임들이 의무감이 커지면 그 모임은 서서히 죽는다고 봅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우선해야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무료가 많아요. 요즘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돈을 내야하죠. 개인적으로 지갑 없이도 마음 편하게 들릴 수 있는 문턱 없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커요.

가족이 함께 행복을 느끼는 도서관

우리는 ‘함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함크’가 마을의 작은 도서관으로서 우선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문화를 다시 복원하며 새로운 마을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누려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동아리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내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가기에 큰 무리 없이 15개 정도 동아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만나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의 특징이에요.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할 때 관장으로서 ‘그래 우리 도서관은 대안 도서관이야!’라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책 읽어도 되는 도서관’, ‘그림도 그리는 도서관’, ‘아이들이 놀러오는 도서관’, ‘바느질을 하러 오는 도서관’, ‘공연하는 도서관’이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도서관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에 어떤 도서관을 가고 싶은지 어떤 형식의 도서관을 원하는지는 개인이 선택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엄마들이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았습니다. 엄마들은 마을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를 통해 나누고 싶어 합니다. 또한 엄마들은 사교육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잃어버린 진짜 놀이를 찾아주고 싶어 하고, 결혼 전 가졌던 꿈들을 다시 꿈꾸고 싶어 합니다. '함크'에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엄마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가족이 함께 오고, 엄마들이 와서 즐거우면 아이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엄마가 행복해하면 아이들도 행복해하거든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 마을이 행복해진답니다.

마을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만드는

사진가





류인덕 주민참여예산위원(2단지)

류인덕 씨는 리버파크 2단지 주민으로 강일동에 자리를 잡은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살며 다양한 활동을 해서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마당밭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자율방범대, 지역아동센터 사진교육 자원봉사 등 지역에서 다양한 공동체 및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자료 아카이빙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활동과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준비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진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마을 주민이 생각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배려심 많은 주민이 모여 사는 강동구

강일동에 온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전부터 인연은 있었죠. 원래부터 강동구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어요. 송파에서 살다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어서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곳이 강동구의 선사초등학교였고 암사동으로 이사 와서 강동구 주민이 되었어요. 12년 정도 되었네요. 와서 보니 지역 주민 모두가 배려심이 많아서 인상 깊었어요. 공기도 좋고요.

저는 강일동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열린공간 카페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들르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또 근방에 벌말공원은 산책하기에 좋고, 가래여울도 추천합니다. 서울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마을이거든요. 조용하면서도 옛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골 분위기라서 참 좋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면서 지역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생긴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강동구에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열렸어요. 제가 그때부터 참여했으니까 3년 정도 되었네요.

강일동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등을 했어요. 특히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쳐주는 활동을 참 좋아해요. 저도 치유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꿈을 키워줄 수 있기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여름부터 시작해서 대략 3~4개월 정도 되었네요.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중1과 초6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사진수업은 아이들 스스로 무엇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자긍심을 갖고 긍정적인 관점도 기를 수 있어서 꿈을 이뤄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롤모델이 있는데 바로 청산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진'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청산도 사람들이 각박한 생활로 인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도록 하자'라

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달에 몇 번씩 방문해서 어부, 가정주부, 아이 할 것 없이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진을 찍도록 했대요. 그 이후로 청산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지역을 다시 바라보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사진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을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강동 사진아카이브

내가 사는 지역인 강동구에서 특별히 마음을 두는 곳을 사진으로 남기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를 고르기도 했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찍은 아이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그 때 추억이 남아 있는 거죠. 또 예쁜 종이를 깔고, 배경을 꾸민 후 꽃을 찍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최근에는 자화상 찍기를 했어요. '셀카' 찍기 같은 거죠. 10컷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가장 나은 사진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참여해서 강동구 어디든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행사를 하고 싶어요. 강동신문에다 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전시회 같은 것을 해보고도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후에 사진들을 모아서 '강동맵지도' 같은 것을 만드는 거죠. 어느 장소들이 사람들이 추억이 담긴 장소로 생각되는지 남겨보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나도 저런 생각을 했는데' 라고 동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처음 동네를 찾는 사람들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쉬운 점은 지금은 사진수업을 할 때 아이들에게는 개인 카메라가 없어요.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있어요. 주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특성상 보여줄 수 있는 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가 필요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죠.



현재 개인적으로 강동구에서 '강동아카이브' 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 자료로 남겨 하나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에요. 지역 주민이 찍은 사진들이 모두 강동아카이브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행사사진 촬영 요청이 가끔 들어와요. 개인적인 일도 있기에 모두 할 수는 없는

데 이런 행사 사진들도 모아서 강동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강동아카이브에 관심을 표시하는 사람들은 몇 분 있어서 카메라가 조금 더 준비되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동호회를 이끌어 나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협동조합이 어떨까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사진 교육을 하고 동호회원을 모으는 것이 지금 목표예요. 마을에 있는 협동조합 사진을 무상으로 찍어 줄 계획도 있어요. 단순한 사진 찍기를 넘어서 마을 주민들이 교류하는 것이지요.

강동구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에서 동아리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에는 제가 1기로서, '사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5개월가량 활동을 했었어요. 지금은 6기인데, 주민참여예산 위원 50여 명 위주로 구성되었고 창업을 위한 모임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제안이 있는데, 강동아카이브도 그 중 하나예요.



주민이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이 있는 동네를 꿈꾸며

강일동의 미래를 상상할 때, 가장 궁금한 건 주거 환경이 어떻게 변할 지예요. 10년 후엔 거의 제 나이가 예순인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할 것인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돼요. 당연히 좋은 방향이길 바라지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공동체 모임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수원 행궁동 마을에 있는 '대안공간 눈'

이라는 카페처럼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드는 것도 꿈이에요. 강동아카이브도 그런 꿈의 연장선상인 거죠.

거리를 걷다가 쉬어갈 수 있는 카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카페는 꼭 문화,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강동구에도 예술 관련 종사자 분들이 많거든요.

강일동 아파트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바라는 점은 각 단지의 대표들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단지의 입주자대표들이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모임을 만들어 나간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협동조합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주인 되기

공동육아 공동체
엄마정





정은영 엄마정 대표(10단지)

정은영 씨는 강일리버파크 9단지 주민으로 엄마들의 쉼터라는 의미의 '엄마정' 모임을 이끌고 있다. 엄마정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학습하는 공동육아 커뮤니티로 엄마들의 재능기부로 가르치는 다양한 수업과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엄마정 회원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바로 엄마들 자신이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행복맘이다.

첫 아이를 가지고 이곳으로 왔으니까 지금 5년 차네요. 처음에는 시내도 가깝고 단지도 한적해서 좋았어요. 지금은 쓰레기 매립지 등으로 인해 매력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공동육아 모임 엄마정은 제일 처음 이연주 씨가 만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이곳에 와서 그냥 사는 것도 좋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웃과 만나고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때 딱 생각했죠. 엄마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2012년 소모임을 결성하고, 작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니 대략 2년이 조금 덜 되었네요. 엄마정이라는 이름은 노인정과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예요. 엄마들이 쉬는 쉼터 개념이죠.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결정했어요.



우리는 조금 독특한 모임이에요. 일반적인 공동육아 공동체와는 차이가 있어요. 다른 모임들은 엄마 힐링, 육아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공동육아 최고의 목적은 아이들이 가능한 늦게 사회에 편입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들이 일찍 어린이집에 가는데 우리는 직접 놀 거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늦게 보내지는 생각이 있어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품앗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에 10단지 문고에서 수업을 하는데 크게 3개 팀이 있어요. 1~3세 영아, 4~5세, 6~7세 팀 이렇게요. 물론 6~7세는 활동을 잘 하지 않아요. 4~5세 팀이 주축이라고 볼 수 있죠.



품앗이 육아를 하는 엄마 공동체

엄마정이 하는 활동들은 정말 다양해요. 아빠가 참여하는 수업도 해요. 엄마와 아이들만 친해지는 건 뭔가 부족한 느낌도 들어서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연극도 보러 가고, 숲체험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동차에 색칠을 하는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마다 태권도 교실도 있어요. 이외에도 정말 많이 했어요. 고덕천에서 자전거도 타고, 쓰레기도 줍고, 숲 유치원이라는 숲에서 치유를 받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이걸 참 좋아서 매년 진행을 해요.

작년에는 시작 단계였기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점차 알아가고 여러 활동들을 하다보니까 다들 재능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인원도 10명 정도고 우리끼리 한다면 근처 문화센터보다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모두 재능이 엄청 많은데 그래도 서로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조정을 잘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바깥 활동도 많이 해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저희 모임의 임원 선출방법은 일종의 지목제예요. 대표를 했던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거죠. 그런 지명 받은 사람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정해서 임원진을 만들어요. 임기는 6개월인데 한 번 더 해서 최대 1년간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표가 돼서 이런 저런 제안을 했어요. 공동육아에 아이랑 왔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아이가 방치된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당번제를 정하자고 제안했어요. 또 저희가 회비를 한 달에 5천 원씩 내는데 이렇게 달마다 돈을 걷는 게 조금 سنگ가시다는 생각에 6개월에 몰아서 내는 걸로 바꿨죠. 대표의 임기에 맞춰서 말이에요. 원래 제 임기는 12월까지인데,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어요.

단순히 재미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만큼 봉사하는 건 감수해야 하겠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월례회의의 제도가 있어서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엄마정의 대표를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아이들을 최대한 늦게 유치원 같은 기관에 편입시키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학원이나 학교에 늦게 보내는 게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성을 키운 후에 5세 이후쯤 유치원에 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공동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어요. 공동육아의 최

고 장점은 같이 모여서 같이 웃고 떠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년에는 먼저 인원을 더 충원하려고 해요. 서울시의 지원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더 큰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해갈지 고민이 있어요. 엄마들이 공부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모두 고향친구처럼 어울려 자랐으면 좋겠어요. 엄마들끼리 교류도 더 활발해졌으면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돌봄 속에서 교류를 가지면서 자라나길 바라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엄마정을 함께 하면서 기쁨과 고마움은 값으로 치기가 어려울 만큼 소중합니다. 처음엔 또래 친구를 만나러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여러 경험을 하면서 배짱 두둑한 소년 소녀로, 자존감이 충만한 청년들로 자라기를 희망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공동육아 공동체 엄마정을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마을을 행복한 향기로 채우는

커피전도사





홍순애 커피P&P 대표(7단지)

홍순애 씨는 12월 초 오픈한 강동 리사이클 시티 2층에서 커피P&P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강일 리버파크 7단지 주민이자 강일동 커피 전도사로 단지 내에서 여러 차례 핸드드립 커피 강습과 베틀시장 커피 봉사를 하였다. 커피P&P의 정기 강좌인 커피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과 다문화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앞으로 커피P&P가 2호점, 3호점으로 널리 퍼지길 희망하고 있다.

강일동은 공기가 좋고, 사람들도 순박해서 정을 붙이게 되었어요. 작년에 마을 공동체를 처음 접하면서 내가 무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로 재능기부 활동을 시작한 거죠.

핸드드립 커피를 시작한 지는 대략 5~6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 모임에서 출발했어요. 친구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다가 주변에서 재료비라도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도 재능기부를 하면서 재료비만 받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일이 되었어요. 핸드드립 커피는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김대기의 커피스쿨'에서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 당시에도 저는 가장 연륜 있는 수강생이었어요. 처음에 취미로 배웠는데 평생 일이 되어버린 셈이네요. 재능기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취미로 배운 재능이 기부 활동으로

은행이나 일반 사무실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대략 3년 전 정도예요. 보는 것과 달리 해보니까 재미가 있었던 거죠. 이론 위주가 아닌 실습 위주라서 그랬을 거예요. 이론을 얼마나 잘 어느나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진짜 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 강의 경험도 조금씩 쌓이게 되었어요. 단순히 커피를 내려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커피 학습동아리는 우연히 강동구 사회경제지원센터 사무실에 갔는데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요. 단지에서 커피동아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와서 놀랐어요. 우리 단지만 아니라 모든 단지에서 올 수 있도록 홍보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이 학습동아리 활동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12월에 마지막 수업이 있어요. 마지막 수업은 새로 오픈한 리사이클 시티에서 할 예정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최근에는 강동구 지역 행사나 축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 주 토요일에도 서울시와 강동구청에서 지원하는 마을 공동체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커피 봉사를 했어요. 그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행사에도 참여했구요. 저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부를 많이 해요. 벼룩시장에서도 역시 기부하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기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부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기부행사가 있었으면 해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커피아카데미

얼마 전에 리사이클 시티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문화,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 등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사회 경험을 미리 하도록 해



주는 것이죠. 성인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되구요. 참고로 리사이클 시티는 작가들의 아트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작가들이 15명가량 들어올 예정이고 예술작품들도 설치될 거예요. 오픈은 12월 6일로 잡혀있습니다. 요즘 오픈에 맞춰서 작품도 들고, 전시도 하느라 아주 바빠요.

리사이클 시티에 커피 매장을 오픈하게 돼서 가장 좋은 점은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바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공간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오아시아’ 라는 카페형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곳은 다문화여성 중심이죠. 만약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요. 저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에게 단순히 무언가를 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을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싶어요.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핸드드립 기술이고 그것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이번에 오픈하는 카페는 커피아카데미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리사이클 시티 내에 있는 교육장은 규모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공방에 입주하는 분들과 커뮤니티 공간을 모두 같이 쓰는 것이고, 옆에 교육장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간만 된다면 주 1회씩은 열고 싶어요. 아마도 이 부분은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예술가 분들과 시간 등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수익이 발생해야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도 하며 비용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순수자원봉사가 아닌 수익이 창출되는 봉사를 하고 싶어요. 저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말이죠.

일단 아카데미를 진행하면, 회당 1만 원씩 재료비를 받을 생각이예요. 장소비를 줘야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큰돈을 주고 들어가지 않는 대신 조금씩 지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

이 사실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곳도 있었는데 거절했어요.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확장하기를 꿈꾸며

먼저 벼룩시장에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여 리사이클 시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는데 돈 보다는 같이 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두 분이 생겼어요. 회계 일을 많이 도와주실 세무사님하고 홍대에 계신 몇몇 분들 중에서 예전에 커피 수업을 들었던 분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자신과 잘 맞는 사람과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봉사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를 포함하여 상근은 2명이고, 재무 관련해서는 세무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서 수익이 생기면 많은 부분 기부를 하고 싶어요. 물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조율이 필요한 일이지만요.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더 공부할 생각입니다. 지금 가게가 더 발전해서 2,3호점으로 나갈 때는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아카데미에서 배운 분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 참 좋겠어요.

저는 카페를 통해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유만 있다면 기계 사용료만 내고 직접 로스팅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생각 중이에요. 2호, 3호가 계속해서 생기고 그 운영자들이 직접 와서 콩을 볶아간다면 훨씬 편할 거예요. 사실 지금 카페들은 이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혁신하고 싶은 것이예요.

행복한 향기를 만드는 커피전도사

저는 정말로 커피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이게 제 목표이자 비전이기도 해요. 저희 집은 항상 커피 향이 나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주고 그 향긋한 향을 맡으며 출근한다면 하루가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곧 아로마테라피, 즉 향기치료의 일종일 수도 있겠죠. 그 어떤 허브 향보다 아침에 커피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모든 집에서 이런 아침을 맞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앞으로 다문화 사람들이나 은퇴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큰 공간도 바라지 않아요. 테이블 2~3개만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커피를 내릴 수 있는 곳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의 존재는 가장 기본이지만 희망의 씨앗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발생하는 수익은 곧 다시 그 분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작은 곳이라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저와 같은 핸드드립 강사를 배출하여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강일동 주민이 조금 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조금 더 도와줘서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즐거운 7단지 아파트 공동체에

놀러오세요





김의연 7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

김의연 씨는 리버파크 7단지 공동주택대표회의 회장이다. 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이사 와서 일찍부터 지역 일들에 관심을 갖고 배드민턴 동호회, 아파트 동 대표를 거쳐 작년 단지 전체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작년에는 7단지 문고 꾸미기와 탁구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으며, 올해 가을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한 노래자랑 축제를 열었다. 강일동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그 중 7단지가 주민의 화합이 잘 되어 리버파크 10개 단지 중 가장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단지가 되길 바란다. 내년에도 주민화합축제 한마당을 2회째 이어갈 계획이다.

아이들이 즐거운 동네

강일동에 처음 왔을 때는 초등학교도 없었어요. 5년쯤 전이었지요. SH공사가 개발을 했는데 주택만 지어놓았을 뿐 교통도 불편했고, 단지는 완공되었지만 거리에는 보도블록도 안 깔려 있는 형편이었죠. 첫해 여름이 지나고 9월말부터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았어요.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지, 버스나 기반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어요.

한 번은 입주 초기 물을 틀었는데 흙탕물이 나왔어요. 상일동에서 강일동으로 들어오는 식수관이 터져서 그랬대요. 그래도 가을 되니까 버스노선도 생기고, 기반시설도 늘어났어요. 좋았던 점은 서울이지만 공기는 아주 좋았어요. 저녁이 되면 조용해지는데 밤에 집에서 듣는 개구리 소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입주 초창기에는 리버파크 아파트 10개 단지에 있는 놀이터 투어를 다녔어요. 리버파크 아파트는 1단지부터 10단지까지 놀이터가 다 달라요. 1단지는 뱃놀이 터가 있고, 4단지는 기차모양, 10단지는 우주선같이 되어 있어요. 9단지는 코끼리 같이 생긴 조형물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각 단지마다 놀이터에 가서 한 시간 정도씩 뛰어 놀았어요. 겨울이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이 '강일랜드' 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눈이 내리면 아이들이 여기에 다 모입니다. 야트막한 언덕이라 아이들이 눈썰매나, 비료포대 타고 와글와글 모여서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입주 초기 여름에는 6단지에서부터 3~4단지에 분수 물을 틀었는데 그것도 참 재미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좀 크다보니까 하지 않고 있지만 그때는 참 재밌게 다녔습니다.

주민 화합 한마당이 된 축제

제가 7단지 공동주택 대표회의 회장이 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전에 동 대표를 3년 정도했으니까 거의 4년 넘게 활동하고 있어요. 7단지는 초창기에 입주자회의 동 대표 간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동 대표



들이 하는 일에 반감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소송을 하다 보니 뭐 돈 되는 게 있나보다 하고 안 좋게 바라보던 시점이었는데 제가 동 대표가 되었어요. 이 때 대표들이 새로 임명되어서 이분들과 예전 일은 다 잊고 주민이 가깝게 지내고, 투명하고, 좀 더 좋은 단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된 이후 희망제작소와 인연이 되어 강동구청, SH공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7단지 행복한아파트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나 주민 모임 등을 했어요. 한두 사람 이웃을 알게 되고 더불어 사는 아파트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7단지가 정말 좋은 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아파트공동체학교에 참여하고 다른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 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노래자랑 축제라는 큰 행사를 했어요. 처음에 축제를 하자고 했을 때, 과거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민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밀고 나갔지요.

처음에는 같이 꽃을 심을까, 아니면 주민을 모아서 놀러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주민화합 축제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어르신 세대부터 신혼부부까지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해 마술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웃음치료, 그리고 주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노래자랑을 해보자고 구상이 되었어요.

노래자랑은 유아-초등학생, 중고등부, 성인부, 3개로 나누어서 시상을 했는데 노래, 춤 다 포함해서 20개 팀이 나왔어요. 각 부별로 1등부터 4등 그리고 참여상도 주었어요. 행사 중간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노래자랑이 끝난 후에는 야시장을 열어서 주민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대 설치도 우리가 직접 했어요. 단지에 있는 평상을 무대 삼아서 카페트천을 사서 씌우고 기둥 세우고 현수막도 걸었어요. 고생은 되었지만 저도 좋았고 모두 만족했어요. 행사를 하면서 가능한 돈을 많이 안 쓰려고 했어요. 주변에 있는 마트와 식당들에서 경품 찬조도 받았고, 행사 때 쓴 천막과 의자도 주민센터에서 빌려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고 나니 주민들이 내년에도 또 하자고 해요. 원래 이 행사를 봄에 하려고 했었다가 세월호 때문에 미루게 된 것이었는데, 좀 미뤄지긴 했지만 이번엔 하길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정례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이웃사촌을 위하여

7단지 관리사무실에는 작은 도서관과 탁구실이 있어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으로 이루어진 ‘꿈빛맘’ 이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아이들 간식을 일부 지원해드렸어요. 작은 도서관에서 가장 책을 많이 빌린 어린이를 선정해서 연말에 상품을 줄 예정입니다.

탁구실에서는 작년에 탁구동호회가 생겨서 현재 ‘화목한 탁구동호회’ 라는 이름으로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시간에는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지만 탁구장 마루 바닥은 깔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단지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동대표들이 지금도 많이 봉사하고 있고 다들 사심 없이 단지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도 아파트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나보다 이웃을 조금 더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질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동주택도 충분히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살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우고, 놀고, 즐기는 행복한 공동체

글향기 문고





배영숙 글향기 문고 회장(4단지)

배영숙 씨는 강일 리버파크 4단지에서 주민과 함께 글향기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글향기 문고는 2010년부터 문고실을 오픈해서 미술수업, 생태수업, 역사수업, 영어수업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부모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었다. 올해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여 마을학교, 주민축제 등을 하였으나 너무 많은 일을 치르느라 힘이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회원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인터뷰 내용 중 문고실 활동과 강일동 지역 관련 의견은 문고실 엄은하 총무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문고실 봉사부터 시작

2009년 가을에 입주했는데 강일동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황량했어요. 새로운 단지는 멋지게 만들었지만 편의시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주를 시켰어요. 집만 지어 놓고 편의시설도 없고, 그해 겨울은 황량했습니다. 집은 새집이라서 좋았지만, 부대시설은 너무 안 받쳐 주었어요. 단지 상가도 너무 작고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했구요. 처음에는 주민센터 옆 상가건물도 텅 비어있었어요.

2010년 봄에 단지 게시판에 문고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니까 뭔가를 깊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첫 번째로 신청을 했어요.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명예 사서를 했거든요. 다른 신청자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해 초가을쯤에야 세 명이 모여서 같이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문고실 봉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강일동을 사랑하고 어린 시절부터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이 자라길 희망하며 문고 봉사를 합니다. 또한 봉사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문고를 운영합니다.

문고실 봉사는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합니다. 맨 처음에는 오후에만 열었어요. 몇 년 지나면서 멤버가 바뀌고 3년 전쯤 회장이 되었어요. 현재 문고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모두 5명인데 각각 역할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데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부모커뮤니티와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

문고실에서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영어수업, 미술수업 등을 해왔는데 작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알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부모커뮤니티사업'과 '우리 마을 공동체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글항기 문고의 부모커뮤니티 활동은 단지에서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노는 활동들입니다. 숲체험, 보드게임, 우리 역사 탐방, 옥상텃밭, 자연체험, 딱따구리 생태수업, 어린이미술 등 다양한 수업들을 자원봉사자들이 각각 나눠서 합니다. 봉사자들이 재능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는 해야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 공동체사업은 주로 엄마들을 위한 수업들로 맘 역사스튜디오, 맘 크로스인글리시, 맘 수채화교실 등이예요. 주로 30~40대 엄마들을 중심으로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수업들은 강일동 주민뿐만 아니라 명일동과 암사동, 둔촌동 등에서도 와요.

수업은 1주일에 한번 90분씩하고 미술수업의 경우 3시간으로 했어요. 다른 수업은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미술선생님만 초빙했어요. 선생님은 명일동 주민으로 근처에서 미술학원을 하신 분입니다. 매주 오시기 쉽지 않은데 거의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십니다. 데생부터 시작해서 수채화, 인물화. 기초 위에 중급도 했어요.

마을공동체 활동들은 모두 올해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 혼



자 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주었어요.

나도 이웃도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마을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주민학교 한마음축제(10/17~18)를 했어요. 문고실 활동을 하면서 주민 축제를 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우리끼리 회의하며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며 공동체를 활성화시킬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등 여러 차례 고민하다가 주민과 나눌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해서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에는 강일리버파크 10개 단지와 고덕동 주민까지 오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녹색장터도 같이 하며 전도 구워서 팔고요. 행운권 추첨이 인기가 있었는데, 경품은 상가에 있는 중국집에서 찬조를 받았습시다. 동 대표 회의에서는 아이들 그림 그리기 대회 참여상을 지원해주셨어요.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예정입니다.

주민축제를 하고 나서 좋았지만 한편 허탈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계획한대로 진행은 되었지만 큰일을 치르다 보니 힘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고 나니 공허하고, 시작을 했으니 목표를 향해 가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의미가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공동체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일단 우리가 행복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아이 옆의 아이도 행복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행복하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열어놓고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 된다' 그렇게요.

여기는 다른 동네보다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기에 좋은 환경이고 돌아보니까

강동구 전체에서도 마을 공동체가 여기만큼 원활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앞으로 강일동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여기가 서울의 극이고 생활환경이 단절된 느낌이 들지만 머지않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세대 간에 포인트를 주어서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나서 행정에 바라는 점은 정산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실제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돼서 불편해요. 또 항목 간에 변동이 안 되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입주자 대표들과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고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없애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 대표도 저희 같이 공동체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엄마들이 살림하듯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는 문고실 총무가 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동 대표도 엄마들이 주가 되어 아파트 일을 의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즐겁게 했는데 돈을 받고 하다 보니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보람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봉사하고 활동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한 일들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복이 이웃에도 전해지고, 그 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가 더 확대되길 희망합니다.

강일동 사람들의 해피하우스,

열린공간





고경자 열린공간 강일카페 위원장(8단지)

고경자 씨는 8단지 주민으로 열린공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주민센터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탄생한 열린공간 카페는 강일동 주민의 사랑방이자, 공동부엌, 그리고 활동하는 여성들의 쉼터로서 전통떡 강좌, 생활영어강좌, EM강좌, 소셜다이닝 집밥 등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고경자 위원장은 열린공간이 자신의 꿈을 담은 해피하우스로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갖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 하루 사명감을 갖고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열린공간은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사랑방이에요. 이 공간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든 사용이 가능한 열려있는 공간인 거죠.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주민들끼리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단발성으로 그쳤어요. 또 중복되는 강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화된 강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부나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강좌도 생각했구요. 그래서 전통떡 강좌, 커피와 샌드위치 만드는 법을 배우는 강좌 등이 생긴 거죠.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영어학원은 많지만, 성인 어학원은 없어요. 그래서 생활영어 강좌도 만들었고요.

금요일에는 직접 위원들이 집밥을 해서 주민에게 대접하는 금요일 집밥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무료는 아니고 5천 원에 대접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게는 무상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요. 좋은 먹거리 나눔과 제철에 나는 재료로 반찬을 나누어서 갖는 소셜다이닝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양봉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도시텃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강동구는 그런 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에서도 양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죠. 길동생태공원 끝자락에서 별동을 놓고, 양봉 교육생들과 같이 하면서 채밀의 기쁨도 나누었고요. 벌들을 위한 월동준비를 최근에 하기도 했어요. 시니어들이 도시양봉을 하면서 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양봉 부산물로 각종 밀랍, 꿀비누 등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EM 발효액과 비누만들기도 하고 있어요. EM 특강은 올해 4회를 했어요. 1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초등 이상 아이들에게 책놀이를 통한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어요.

EM강좌는 지역에서 다른 곳과 연계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강동구에 장애인 시설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특강을 하기도 했어요. 그곳에서 만드는 비누를 우리가 판매해주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역 시설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게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이 공간은 이 주민센터 건물 내에 카페테리아였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기엔 조금 아까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장님을 통해서 강동구에 문의를 했어요. 이곳을 오픈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말이지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이 공간이 훌륭한 공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6개월 동안 계속 요청했어요. 그때 마침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을 시작했어요. 강동구에는 마을공동체지원실이 생겼고, 작년 초부터 각종 마을팀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 지속적인 논의를 했고 이후에 서울시의 공간지원을 받아서 이곳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공동체의 씨앗뿌리기

작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다는 열정만으로 했어요. 초기에는 많은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공동체의 씨앗을 뿌려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그 결과 ‘공동육아, 도시텃밭, 사랑방, 생태보전’이라는 크게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죠. 1년간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실험적인 프로그램들을 해 보았어요. 저는 이것이 곧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활동하면서 힘들기도 했어요. 역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많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처음에는 진행이 쉽지 않았어요. 갈등도 많이 생겼고요. 이 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지속적으로 활동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렇게 끝내기에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꽃피우지도 못하는 것들이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용기를 주었어요. 1단지의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추운 겨울 날 돌봐야 할 아기들이 있는데도 이곳에 와서 격려를 해주고 서로 지지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공동체에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을 잡으며 ‘1년을 다시 해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내게 된 것이죠.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곳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또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단지에서 공동체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4단지 작은 문고에서는 엄마들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엄마정’도 마찬가지죠. 6단지도 작은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저는 강일동의 이런 작은 문고가 공동체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의 관리소마다 한 곳씩은 다 있기 때문이죠. 8단지에도 제가 작은 문고회를 결성하게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작은 문고회가 더욱 활성화되

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와 연계된 특강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마을 스캔들'이라는 마을 축제를 했는데 작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양한 공동체 사업들이 선보이는 자리여서인지 참여하는 주민도 많았어요. 그런 점에서 강동구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강일동은 강동구에 속하긴 하지만 변방이에요.

제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강일동이 각지에서 사람들이 입주하기도 했고 고령자, 다자녀 등이 많은데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심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주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민들 간의 문제점들을 커뮤니티 공간에서 해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방법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이죠.



모두 마음을 모아 만들어나가는 해피하우스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공간을 운영하는 노하우를 습득한 것 같아요. 저는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수강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을 해요. '이곳은 주인이 따로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을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수강료 없이 재료비만 내고 들을

수 있는 특혜를 여러분들께 드린 것입니다.’

학원처럼 수업만 딱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나 청소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말도 해요.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모두 같이 참여해서 봉사하고 수강자뿐 아니라 강사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자고 합니다. 이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두 시간 정도라도 이곳을 지켜주시고 카페를 찾는 주민에게 커피나 차를 대접하는 일도 도와주고 있어요.

열린공간에도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수강자이며 봉사자들입니다. 저는 강사님이나 수강생들이나 다 위원으로 생각해요. 같이 봉사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깐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해피하우스라고 생각해요. 이 공간이 내 집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곧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를 방문하는 주민 모두 다 행복을 나눌 수 있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카페에 들어오는 분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향한 비전을 갖고 나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모든 구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을 위한 부업과 일자리 창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관련된 강좌를 함으로써 부업의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회원이 늘어나서 연도별 명단을 보니 작년에는 15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300여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은 서로 가족 같은 느낌이 필요하다고 봐요. 원칙을 정하고, 정해진 틀 안에서 계획대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틀일뿐이에요. 수강생들과 마음으로 나누는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은 누군가가 항상 상주하고, 또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공간이에요. 아침 열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열어놓는데 행여 제가 없으면 누구라도 이곳에 있도록 하죠.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커피&샌드위치와 함께 인생을 가르치는

영어선생님





김동익 커피&샌드위치와 함께하는 생활영어 강사

김동익 씨는 강일동 주민으로 열린공간 강일 카페에서 진행하는 '커피&샌드위치와 함께하는 생활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30년간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고 제2의 인생으로 배운 제과제빵 기술과 커피 그리고 다년간 실무 경험과 강의로 다져진 영어를 접목해서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아주 특별한 강좌를 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등촌동에서 지내다 이곳에 온 지 4년 정도된 것 같아요. 이전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재건축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황량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민센터 건물도 없었고 아파트만 달랑 있었죠. 1~2년 지나니까 주민센터 건물도 생기고 주민을 위한 공간들도 들어서면서 마을다운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죠.

강일동에서 좋아하는 장소는 8단지 앞에 있는 조그만 동산인데 산책하기에 좋은 장소예요. 강변로도 가까워서 자전거도로도 있고요. 강변을 끼고 걸으면 굉장히 좋아요. 가을에는 억새가 있어서 풍경도 좋죠. 그 옆에는 체육공원이 있는데 축구장, 야구장 등등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이예요. 이런 것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와 샌드위치가 영어를 만났을 때

올해 초부터 열린공간에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는 한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30년간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은퇴하고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고 결정했죠. 한국제과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밟고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했어요. 그 후에 빵집에서 거의 3년 반 동안 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때 고경자 위원장님이 특별한 강의를 고민하다가 커피나 샌드위치, 영어 중에서 하나를 강의해주시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다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영어만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샌드위치 만들기 수업을 같이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젊은 주부가 많이 사는 강일동의 특성상 그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때문이라도 영어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그냥 나와서 영어수업 듣는 걸 무서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배운다는 명분으로 편안하게 수업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수업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커피와 영어, 샌드위치와 영어 이런 식으로 격주로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수업 방식을 조금 특별하게 했어요. 시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고급 재료를 보여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재료도 본인들이 직접 보고 맛보고 선택하도록 했어요.

영어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다국적기업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하고 싶지만 쉽게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쪽 메모해 왔어요. 청담동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부들에게 교육을 해주고자 하기에 저도 거기에 강사로 참여했어요. 거의 7년 정도 동안 일을 하면서 병행했죠. 사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같은 분들도 회화는 생각보다 잘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에게 쉬운 영어를 가르쳐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영어 강의가 여기까지 이어오

게 되었어요. 이것은 실력차, 수준차가 있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의 정도 수준이었어요. 초보적인 수준이었어요. 그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조금 중학교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어갔죠. 계속 말을 하도록 시킴으로써 자신감을 넣어주고 있어요.



커피 강의는 이론부터 시작했어요. 원산지, 생산국, 재배방법, 수확방법, 지역의 명품 커피의 종류 등등이죠. 외에도 커피 제조 과정, 로스팅 과정, 커피 기계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이론들을 가르쳐주면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단계적인 이론 공부가 이루어졌죠.

샌드위치 만들기 강의도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는 빵이 정말 중요해요. 시중에 파는 샌드위치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곡물로 만든 곡물빵이나 천연효모를 개발하여 만든 빵도 가끔씩 사용하지만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서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있어요. 치즈는 국내에서 파는 치즈는 치즈의 본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값에 직수입한 서양 치즈를 사용하기도 해요.

가장 샌드위치에 적합한 치즈는 네덜란드 고다치즈예요. 하지만 비싸서 자주 쓸 수 없고 영국식 체다치즈를 많이 사용해요. 샌드위치의 제일 핵심은 바로 이 치즈예요. 과일이나 채소는 대체로 제철 상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사과도 많이 쓰고 있고요. 빵 그리고 그 계절에 맞춰서 야채를 사용하죠. 그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요. 이런 재료로도 만들 수 있고 맛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주부들이 다양한 요리 방법을 알고, 또 다양한 재료로도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눔과 배품으로 충만한 제2의 인생

고경자 위원장님이 이 활동을 하면서 특화교육을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엔 걱정했죠. 왜냐면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조금 더 들기 전에 재능 기부도 해보고,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정보들도 말해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죠.

또 외국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보니 단순히 커피, 샌드위치, 영어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하게 되었죠. 활동을 하면서 정을 붙이고 도움을 주는 이런 활동들이 '나눔과 배품의 즐거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지금 하는 활동은 구에서 소정의 강사비가 나와요. 학습콜링제라고 해서 두 시간에 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수강생들에게는 10회에 5만 원의 재료비만 받아요. 사실 요즘 걱정이 많아요. 곧 원두값도 더 오를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현재는 시나 구에서 작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 사실 제약이 많아요. 수강생들에게 부담이 가는 점도 없지 않고요. 제대로 활동하려면 기본적인 도구나 시설 등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발생하는 이익으로 다시 또 좋은 재료들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역시 또 자본금이 필요하죠. 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살아 숨 쉬는

꿈빛도서관





진경희, 김미영 꿈빛맘 (7단지)

진경희, 김미영 씨는 리버파크 7단지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꿈빛도서관에서 2년째 도서관 자원봉사와 부모커뮤니티를 만드는 '꿈빛맘' 활동을 하고 있다. 꿈빛맘은 2013년 문고실 공간을 밝고 화사하게 꾸미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읽기, 그림그리기, 동시짓기, 전래놀이, 천연 비누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이전에 거의 이용되지 않던 문고실을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변화시킨 꿈빛맘은 꿈빛도서관이 진정으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꿈꾼다.(이번 인터뷰는 진경희 대표와 김미영 선생님 두 분이 함께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진경희: 2009년 8월말쯤에 이곳에 입주
를 했어요. 대방동, 부천 등에서 살다가
그때 처음으로 강일동에 온 거예요. 맨
처음 강일동은 정말 황량했어요. 전에
살던 부천에는 도서관도 좋고, 또 거기
서 공연도 했었어요. 문화회관 안에 있
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와서 갈 데라곤 한강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조금 후회를 한 것도 사
실이에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한적하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조금 시끄러운 번
화가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한적함도 좋았어요.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희망제작소의 공동체 학교를 통해서였
어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그 전에도 알긴 했었어요. 아이가 고덕동에서 하는 공
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런 공동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았죠. 나중에 내가 사는 강일동에서도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
각을 했어요. 2011년 즈음이었을 거예요.

아이들과 도서관을 같이 가기엔 너무 멀었는데 아파트 단지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활성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을 잘 가꾸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김미영: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
니다 잠시 쉬고 있던 차에 아이들과 함
께 있는 시간동안 뭔가 특별한 것을 해
보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마침
둘째가 꿈빛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
요. 엄마와 같이 해야만 하는 활동이라

고 해서 아이들도 돌봐줄 겸 같이 하게 되었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차근차근

진경희: 올해 처음 계획은 독후활동을 월 2회씩 해서 6개월간 총 12번을 하고, 전래놀이는 10번 정도하는 것이었어요. 또 연말에는 공연을 보고, 저희가 직접 연극을 해보자는 계획도 있었어요. 지금 보니 독후활동은 매주 만나며, 계획보다 더 많이 했어요. 전래놀이는 강습을 1번 받고 나서 전래놀이를 했어요. 연극을 보고 직접해보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대신 보드게임강사 자격증이 있는 어머니가 계셔서 지금 수업을 진행 중이에요. 이 수업은 다 끝났고, 활동했던 소감을 곧 나눌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서 끌어가는 아이들하고, 아파트 단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0월 축제가 있었어요. 원래는 동시 짓기, 그림 그리기를 하루에 하려했는데, 그걸 10월 한 달 동안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된 거예요. 그걸 계기로 많은 아이들이 도서관에 지금도 자주 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10월에 1박 2일로 진행했던 아이들의 피자파티예요. 계획은 엄마들이 세웠지만 막상 시작하니까 아이들끼리 알아서 잘 놀더라고요. 특별히 준비해가지 않았는데도 서로 어울리며 재밌게 놀았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기에 아이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특히 더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려운 점도 있었죠. 특히 독후활동이 어려웠던 게 1주일에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책을 읽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죠. 다시 한다고 해

도 그런 일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처음보다는 더 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김미영: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성립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획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떤 한 가지를 공동체의 목표로 정했다면 조금 더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독서든 전래동화든 말이죠. 정말 힘들게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경희: 이번 사업은 강동구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무언가를 직접 배워서 진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수업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냥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쉽지가 않죠. 저희가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과 아직 논의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또 할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을 했고, 연령층도 다양했었거든요. 회의도 많이 했는데 결론도 쉽게 나질 않고 그랬어요. 다행히 올해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 활동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도 얻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하나의 활동만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있어요.

김미영: 대표님께서 작년에는 혼자 거의 이끌어갔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 여러 의견들도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어떤 조직이든 주변의 의견들을 다 들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동체 활동을 하려면 그런 태도는 반드시 필요고 서로 충분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놀이와 축제로 만드는 공동체

진경희: 꿈빛맘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빛도서관을 알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이 10월 축제에서 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많이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엄마들도 함께 할 수 있었죠.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함께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엄마들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큰 수확이에요.

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참 좋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공부, 컴퓨터 등등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이들이 돈 안들이고 재밌게 놀면서 운동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전래놀이죠. 여럿이 하면 더 재밌고요. 전래놀이는 예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혼자서라도 할 계획이 있어요.

김미영: 전래놀이가 공동체 활동의 취지에 딱 맞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배워서 아이들과 했을 때는 많은 아이들이 해보고 싶어도 어색함이 있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하다 보니 아이들도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엄마들도 꼭 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같이 하면서 공동체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아파트에 산적도 있는데 마을에서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강일동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같이 어울리고, 문고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을이 도서관을 위주로 함께 어울리면 좋겠어요. 다른 단지들도 다 같이 말이죠.

진경희: 저는 도서관에서 하고 싶은 제 꿈을 얘기할게요. 멘토 수업도 하고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갖고 싶어요. 한번은 유치원생인데 6살 아이가 3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걸 봤어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책만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고 교류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일동 7단지에서 5월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달’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또 읽어주면서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림을 마음으로 그려봐요. 이 공간에서 말이죠. 누구에게나 쉼터가 되어주고 계속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 아이들의 오붓한 보금자리,

강일지역아동센터





박필화 강일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고덕동)

박필화 씨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4년 전부터 강일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초등, 중등학생들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센터가 제2의 가정이 되도록 아이들 일상생활 지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이 아동센터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과 하루하루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

2007년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졸업하고 바로 봉사에 들어갔어요. 봉사를 반년 하고 사회복지사로 취업해서 3년 반을 일했어요. 강일센터를 차린 지는 4년째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한 계기가 되었어요. 상담 자원봉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하였는데 지금도 많이 밀거름이 됩니다.

200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공부방이라 해서 종교단체 같은 곳에서 단순히 보호나 교육 두 가지 정도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수준이었는데 IMF 이후 해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현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역아동센터로 개칭을 하면서 운영보조금도 주고 사회복지사들과 같은 전문가들을 더 양성했습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보호와 교육 차원을 넘어 문화와 복지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크게 5가지의 영역이 확립되었습니다.

신나게 놀고 공부하는 제2의 가정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중고생들이 이용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는 초등학생 반 중고등학생 반으로 각각 열 명씩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은 욕구가 달라서 완전히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다양하게 기초학습도 하면서 예체능과 놀이도 들어가는데, 중고등학생은 시간도 부족하고 부모님들이 학습 위주로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아이들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수업으로는 기본적으로 미술, 영어, 수학 등이 있는데 파견된 복지교사가 수업을 합니다. 오카리나, 도예, 사진수업 등은 외부강사가 진행해요. 원래 사진수업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과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와서 휴식시간도 갖고 하는데 기업 후원으로 수학 놀이교육을 하고 있어요. 고루고루 수학 이틀, 영어 이틀씩 하고, 금요일은 특별

활동으로 문화생활을 하거나 노는 날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날에 출석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센터에는 금요일에 놀아줄 수 있는 봉사자가 필요해요. 진짜 봉사를 하고 싶은 대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로 문화 활동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은 와있는 시간도 적고, 프로그램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 부모님들이 학습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성적관리도 해야 하고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할 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까지 1대1로 멘토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1대1 학습과정을 통해 얼마 전 우리 센터에서 전교 1등도 나왔어요.

중고등학생 학습은 제가 센터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예요. 아동센터 중에 1대1로 학습을 지도하는 곳은 드문 편입니다. 다른 곳은 다 초등 위주로 가는데 저희처럼 중학생이 많은 곳이 별로 없어요. 초등은 재미있게 하고 그 외에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중등은 확연히 학습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습 쪽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중고생을 위한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제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대학생들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운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기관이에요. 현장실습생들은 매번 다릅니다. 실습생이 항상 있어요.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고, 보호프로그램, 일상 지도, 바깥놀이도 하고 합니다. 실습생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실습생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수업을 하고, 요리 같은 것도 너무 맛있게 잘합니다. 제가 주말까지 실습생을 교육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인적, 경제적으로 큰 자원이 됩니다. 실습하는 분들이 카페에 매일 실시간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을 올리다보니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도하면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가정에서 못하는 자잘한 점, 말씨, 생활습관,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똑딱하고 바뀌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제2의 가정처럼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지도는 정말 중요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정말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접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활습관에서 나온다고 봐요. 힘든 가정에서 컸어도 바르게 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욕을 쓰는 아이가 전혀 없어요. 중학교 형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봐주는데, 서로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계획이라고 거창하거나 크게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최근 아이들 대기자가 많아서 좀 넓은 곳으로 옮겨보려고 했었지만 그럴 만한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구요. 공사하고 방을 늘려 우선 25명까지로 정원 변경 신청하고, 그러더라도 자꾸 대기자가 생기니까 29명 시설로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학교와 별로 교류가 없는 편인데 학교와도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습생으로 고덕초 선생님이 오시기도 했어요.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으

로 아동센터에서 주말 특별프로그램으로 생태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수업은 아이들과 인근에 산으로 강가로 다니면서 식물, 곤충, 새들을 관찰해서 수업을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토요일에 수업한다고 하면 반가워할 거예요. 예전 센터에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와 같이 돌봄서비스 회의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집중적으로 돌봐주어야 하는 아이들을 아동센터에서 돌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저희는 강일초에 가서 했었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해 교사들은 골치 아파하고 학교에서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센터로 보내주면 집중관리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집중지원아동-사례관리라고 하는데, 그걸 센터에서 맡게 되면 아이에게는 1대1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학교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놀이치료교사도 만나고 하는데,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살펴보고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심 속 대안학교를 꿈꾸며

고덕1동, 상일동은 주민자치회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자치회의에도 참여하여 의견을 내는데 강일동에서는 전혀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소재지가 고덕동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센터에는 강일동 아이들이 많거든요. 물론 강일동에도 6단지 쪽에 아름다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오붓하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대외

활동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알리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소신껏 아이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강일동이 서울 끝자락이지만 저는 이런 환경이 좋아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자연 속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여름 같은 때는 거의 매일 나갔는데 고덕천에도 가고, 물풍선 불면서 놀았어요. 고덕천도 좋더라고요. 중간에 운동기구도 있고, 그런 환경이 좋습니다. 또 곳곳에 동산이 많아서 거기 올라가서 잘 놀입니다. 돛자리 하나만 깔고 그림 그리다 오고 김밥이랑 떡볶이, 컵라면 싸가서 먹고, 이렇게 뛰어 놀고 나면 아이들 체력도 단련되기도 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자연에서 놀다 오라고 해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이들은 움직임으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성격이 좋고, 쌓인 게 없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덕천 옆에는 풋살구장도 있어요. 놀이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심성을 곱게 만들어요. 이 주변 환경이 아이들 교육에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생각해온 것이 도심에 있는 대안학교입니다.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너무 쏠아 터져가면서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 가정인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엄마가 양육을 못하는 형편이면 대안학교 밖에 답이 없습니다. 재능도 있는 아이라 잘 키우면 재목이 될 것인데, 그대로 두면 탈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도 좋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보람도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냥 예쁘고요. 아이들 때문에 제일 행복합니다.

※ 중고등학생 영어수학 지도해주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봉사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1대1로 매칭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 사람들을 이어주는

튼튼한 연결고리





이희동 강동구 지역특화사업단 팀장(6단지)

이희동 씨는 6단지 주민으로 강동구 지역특화사업단에서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체들을 네트워킹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강동 지역특화사업단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 장터 조성, 학습동아리지원, 주거재생사업, 의료돌봄 등이 있으며 최근 지역 시민 그룹인 동동, 중간지원조직들과 함께 '함께 강동'이라는 강동구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강서구 화곡동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다가 강동구 지역특화사업단 일을 하면서 작년 7월에 오게 되었어요. 현재 리버파크 6단지에 살고 있어요.

지역에서 따로 활동하는 모임은 없지만 강동구 지역특화사업단에 있으니 일로써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셈이죠. 강동구 지역특화사업단에서 제 역할은 강동구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네트워킹하는 거예요. 학습동아리를 맡고 있고 요즘은 사회적경제 장터를 조성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소식지를 만들고 있어요. 사회적경제 장터는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장터를 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학습동아리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 분야에 다양한 학습동아리 지원

학습동아리 5기에는 마을극단 밥상이 있고, 천연미인이라는 천연세제 비누를 만드신 주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리사이클 시티에 커피숍(coffee P&P)을 오픈한 홍순애 선생님이세요.

학습동아리 6기는 강동 캣맘캣대디(catmomcatdady)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은 길 잃은 고양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고 동물보호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

세요. 공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연극학교 동아리 모임도 있는데 연극 중심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 예술을 주제로 하는 방과 후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커피 P&P에서 홍 대표님과 같이 일하는 강은주 선생님이라는 분은 학습동아리에서 사과나무라는 예술가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학습동아리 7기는 시작단계인데 보드게임 동아리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보드게임과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 조언해드립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분야를 사회적경제와 접목하면 어떨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면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습동아리는 매 기수마다 6개월씩 진행을 하는데 센터에서는 최소한의 동아리 모임 및 교육비를 지원해드리고 멘토링해드립니다. 장터가 있으면 결합해서 함께 합니다.

시작은 2013년 7월부터 하였고요. 1기는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역특화사업단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3기에는 4개월 동안에 23팀이 결성되었는데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해에 진행하는 기수를 줄이고 매 기수별 팀 수도 줄이는 대신 지원금을 늘리자고 방향을 정했지만 지원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수를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강동'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함께 강동'은 원주가 롤모델로서 강동구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동구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시민단체까지 하면 100개 정도 되는데 그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그분들과 함께 전주 완주 탐방하고 12월 18일에는 희망제작소 이원재 부소장 강의도 들으려고 합니다. 사업단이 1년 반이던 끝나는데, 그 분들이 중심이 되는 재단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지난달에 1호를 창간한 '함께 하는 발걸음'이 그분들의 활동을 담은 소식지예요. 현재 '함께 강동'을 준비하는 분들은 사공(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인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실, 지역특화사업단 그

리고 동동이 있습니다. 동동은 강동구 시민단체들의 연합모임이구요. 저희가 재단을 만들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데 그걸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주거재생과 의료돌봄 사업에 집중

지역특화사업단은 내년 5월이면 2년차가 끝나고 재단을 조직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주거재생사업과 의료돌봄사업 같은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업단의 일은 1년차는 네트워크 형성, 2년차는 심화, 3년 사업실행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주거재생사업은 천호동 재개발지역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에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아파트 경비원처럼 노후한 주택을 관리하고 수리도 하는 방식이에요. 주거협동조합에 모이는 분들이 페인트하시는 분, 화훼하시는 분, 재개발 전문으로 하시는 분 등 다양합니다. 주거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작년부터 계속 모이고 있어요. 지난번 그분들과 같이 현대홈쇼핑 사회공헌사업과 결합해서 천호2동 골목 정비, 꽃단장, 페인트칠을 해보았습니다.

천호동 외에 주거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암사3동, 성내동 등입니다. 주거재생에 사회적경제를 접목하는 방식은 요새 서울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많이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인데 한살림을 중심으로 강동구 보건소장, 지역 유자들이 모여서 의료생협을 만드는 방식을 스테디하고 있습니다. 마포의료협동조합이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강동구가 노인인구가 많은 편이고, 영유아도 많아서 돌봄 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저희는 그걸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경제 장터 ‘뜰장’을 활성화

내년에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은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장터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장터는 일명 ‘뜰장’이라고 해서 ‘해뜰장’ 또는 ‘별뜰장’에서 가져왔는데, ‘뜰장’을 활성화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광진구 지역특화사업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넓힐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하남 미사지구가 완공되면 강일동도 완벽한 아파트촌이 될 텐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촌은 삭막해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주공아파트처럼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여기도 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공동체로 묶으려면 아파트가 좋은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좋은 단위가 아파트인데 앞으로 그런 활동들이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역에서 살면서 하남 미사지구 공사차량 이동이 많아 아이들 교통이 위험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유치원이 부족해서 고덕동으로 보내고

있고, 초등학교를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는데 중간에 전학을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또 겨울에는 춥다는 것도 단점이네요. 집이 15층인데 외벽이라 결로가 생기고 추워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예민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아이들 세 명이라 이사 오자마자 아랫집에 김장김치를 가져다주었고, 그 뒤로도 먹을 것 갖다 주고 하였어요. 아랫집도 아이들이 있고 맛별이 주부라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신경이 좀 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마을극단 밥상이야기

제 아내이자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가람 씨는 마을극단 '밥상'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정가람 씨는 원래 서울예전을 나와서 희곡 극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연극 '국화꽃향기' 희곡을 썼고 '라이언킹'을 번안하고 희곡화하는 작업도 했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투란도트라는 작품도 했어요. 우리나라 뮤지컬 1세대로 김효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이 연출하는 작품에 아내가 작가로 참여한 작품이 여럿 있습니다.

정가람 씨는 세 아이의 육아 때문에 희곡 작가 일을 쉬고 있었는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교육이 계기가 되어 마을의 배우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직접 써서 공연하는 마을극단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지역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강동맘카페'에 올렸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재야에 묻혀 있는 무림의 고수들이 모여들듯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그 동안 자신의 끼



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엄마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보컬 출신, 음악 전공자 등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정가람 씨는 그들의 첫모임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해요.

“다들 이 모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적어 놓고 하나씩 부르기로 했어요. 누군가 첫 번째 단어로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엄마들이 하나 같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혼과 육아라는 굴레로부터의 자유로구나 공감했죠.”

이렇게 마을극단 밥상은 2013년 11월에 학습동아리 3기로 시작했어요. 서울시 ‘우리마을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두 개의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무언기는 해야 하니까 엄마들이 모여서 공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극본을 쓰고, 누구는 작사, 작곡, 편곡을 하고, 또 누군가는 연기를 하는 등 각자 재능에 따라 공연에 필요한 일들을 분담해서 시작했어요.

지난봄에 드디어 ‘함께크는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동네 엄마들과 창작 어린이극 한 편을 올렸어요. 아동극 ‘해님달님’이라는 옛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의 아동극으로 재구성한 것이지요. 공연을 준비하며 엄마들은 아이를 업고 젓을 먹이며 도서관 한쪽에서 아이들 낮잠 재우고 공연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들의 연습을 보다가 혼자 책을 보고 또래들과 어울려 놀며 마을극단과 함께 했습니다. 공연은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엄마들은 공연을 올리며 행복해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극단 ‘밥상’은 두 번째 작품 공연까지 했고 현재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내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공연을 만들려고 합니다. 작품을 5개까지 해서 학전에서 공연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극단 단원들마다 목표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을 살려 자기 발전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취미로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받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원들이 서로 정체성을 잘 모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처음 극단을 만들 때 미션은 지역에서 엄마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마을극단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적인 면도 있어요. 마을에서 보통 엄마들의 모임은 아이들에 따라 엄마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고 모임의 주인공이 아이들인데 반해, '밥상'의 주인공은 바로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모이는 것이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엄마들을 보고, 아이들도 배우는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강일동,
아파트 공동체가
완전
피었습니다

에필로그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한 시간

이웃들과 함께 김장을 해서 나누어 먹고, 앞집 가족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동네,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숨바꼭질하며 놀고, 동네에서 음악도 하고, 목공도 하고, 그림도 배울 수 있는 동네... 제가 평소 동경하던 마을의 모습을 어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강일동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강일동에 뻗질나게 드나들면서 이방인이지만 강일동 주민이 된 듯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강일동의 장점을 하나씩 알게 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사랑하게 된 연인을 알리고 싶은 것처럼 설레는 충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강일동은 다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고 사랑스러운 동네입니다.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어 기쁘고 사랑과 존중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에 와서 머리로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일동 네트워크 모임이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과 공동체 분들에게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우연 뿌리센터 선임연구원

많은 곳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들은 저마다의 빛깔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양한 빛깔이 존재하며 이미 그 빛깔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빛깔이 가장 눈부실 때는, 모든 빛깔이 합쳐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일까요. 저는 그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의 향으로, 누군가는 단지 내의 문고로, 또 누군가는 특별한 공간으로 저마다의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이 빛깔은 바로 내 옆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한, 조금은 느린 그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빛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강일동 사람들이 옆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 애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의 노력의 흔적이 아직도 빛깔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정영훈 뿌리센터 인턴연구원

